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장식(la décoration)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근대건축 및 현대건축은 프랑스에서 형성된 이론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 전통을 추적하면 적어도 프랑스의 계몽주의시대 또는 18세기까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르네상스시대까지도 추적할 수 있겠다.

작고 프랑스와 블롱델(Jacques-François Blondel: 1705-1774)은 18세기의 건축가들 중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전문적 건축행위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이론과 교육, 즉 고전적 건축원리를 열렬히 방어하였고 극도로 엄격한 교육관에 입각한 시각으로 '망사르(Mansart)'가(家)의 건축인들과 '르 메르시에(Le Mercier)' 및 '루이 르 보(Louis Le Vau)'를 찬미하였다. Blondel은 로코코의 장식남용과 소위 Picturesque(회화적) 건축의 폐해를 혐오하여 대칭성과 규칙성으로 성격지워지는 고전적 건축으로의 회귀를 옹호하였다. 그는 'l'Ecole Des Arts(미술학교)'를 설립하였고, 거기서 6권으로 이루어진 「민간건축을 위한 강의 Cours D'architecture Civile」¹⁾를 출판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적극 전파하려고 하였다.

1) J.-F. Blondel의 Cours D'architecture는 Paris의 출판사 Desaint에 의하여 1771년부터 1777년에 걸쳐 전 6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1979년 Françoise Fichet가 고전주의 시대의 건축이론(La Théorie Architecturale à L'âge Classique)이란 건축 이론 모음서에 발췌하여 출판하였다. 내용은 16세기의 Jean Martin으로부터 19세기 초 Claude-Nicolas Ledoux에 이르기까지 고어로 씌어진 이론 Text들의 주요 부분을 현대 불어로 개정하여 실고 있다. Fichet, Fran Coise: La Théorie Architecturale à L'âge classique, Pierre Mardaga, Bruxelles, 1979: pp. 409-461 참조

그의 전반적인 건축적 태도는 아주 엄중하여 5주범(柱範)의 이론만으로써 Ledoux가 재건한 '호텔 뒤제스(Hôtel d' Uzès: 위제스 저택)'에 대하여 가한 혹독한 비평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이처럼 초강경의 보수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당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건물의 필요에 따라 건축을 재고찰할 필요를 감지하여 건물의 유형별(Genres d'édifice)²⁾ '배열(Distribution)'에 관한 생각을 「Cours」의 제2권에서 체계적 이론으로 정리함으로써 그 시대에 있어서는 대단한 명철함을 수반하고 있는 건축인이었음도 보여준다. 유형학으로 이어지는 그의 사상은 그가 품고 있던 각 실(室)의 조합과 땅의 이용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전적 유산을 현대화하고 보존하려는 Blondel의 작업은 로코코 양식의 말기로부터 신고전주의의 탄생시대 사이에 위치한 계몽주의의 세대에 있어서 건축논쟁의 변천에 관한 귀중한 증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 협의의 차원에서 그의 이론 자체만을 재고한다면 그가 원용하는 전통의 특수성과 한계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Blondel은 정확성에 관한 노심초사 때문에 주제목 Cours에 「Vers une Architecture Classique(하나의 고전적 건축을 향하여)」이란 부제를 달아 고전 건축을 지향하는 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의미있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약 1세기 반 후에 Le Corbusier가 저술한 모던 건축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Vers une Architecture(하나의 건축을 향하여)」³⁾를 예시하는 듯하여 흥미롭다.

Cours D'architecture

Cours는 Blondel이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경주한 노고의 결과물이다. 32세 되던 1797년 최초의 저술인 「De la Distribution des Maisons de Plaisance et de la Décoration des Édifices en Général(쾌락의 집의 배치 및 일반 건축의 장식에 관하여)」을 출간하였다. 여러 권으로 된 「Architecture Française(불란서 건축)」는 1752년부터 1756년 사이에 출판되었고 훌륭한 저술들은 대개 후대에 저술되고 빛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 저작인 「Cours」는 1771년부터 1774년에 걸쳐 출판되었다. 저작물의 완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그의 건축개념은 초기의 미성숙과 혼란으로부터 완고한 고전주의적 성향의 완성에까지 모색의 단계를 거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의 저작은 아직도 로코

코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어서 「Distribution des Maisons...」에서는 그가 후에 방증스럽다고 나무라게 될 로코코의 복잡한 우아함으로부터 건축의 권위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식의 건물에 있어서 Bay는 Console위에 얹혀진 흉상을 배치함으로써 장식되고 있는 반면 그의 Trianon의 평면은 형태적으로 다각형인 건축요소들을 끼워넣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그가 Architecture française에서 마치 가장 자리가 톱니모양으로 잘라진 잔디의 형상을 내부공간에 형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는 불필요한 복잡화이다.

「Cours」는 그의 초기 저작들에 비하여 훨씬 더 간결함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장식을 정죄하는 항목은 현명한 배치(Distributions Sages)의 항목과 동반되어 나타남으로 둘 모두 합리적 건축의 조건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흥미하던 백과사전식 지식의 나열로써 이루어지는데 체계적 분류목록의 수록으로 그러한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Objet와 각 항목의 특성을 증가시킨 결과 계단의 구분에 있어서 24종류, 건축적 개성(Characterè 특성)은 40여 가지로 구분되었듯 그의 분류작업은 한없이 많은 열거 그리고 각 항목의 분석적 증식과 잘게 부수어짐으로 각 항목의 특성을 구분하기 힘들만큼 목록이 증가되었다. 이렇듯 속속들이 규명해 내고자 하는 그의 염원 때문에 「Cours」는 건축물에 있어서 각 부분의 명칭과 건축이론 및 과거로부터 계승한 건축언어와의 관계에 기초한 분석술을 참조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Blondel에 있어서 Félibien이나 Daviler와 같은 선배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몽주의 시대의 이론가들이 그러했듯이 건축의 기본요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커다란 틀 - Blondel은 건축을 장식(la Décoration), 배분(la Distribution), 축조(la Construction)의 3개 중첩적 영역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틀을 설정하였다 - 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국면을 균형잡게 하고 있다.⁴⁾ 그가 주장하는 3개의 영역 중 장식과 배치는 건축의 기본을 구상하지만 축조는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한다.

2) 그리스 십자형, 라틴 십자형, 구십형 교회, 대사원, 시장, 수도원 등

3) Le Corbusier의 저술 Vers une Architecture는 영역본 Towards a New Architecture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로 번역, 통용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다면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이다. Le Corbusier가 제목을 붙인 유래와 의미 등에 관하여는 후부에 설명토록 하겠다.

4) Blondel의 아들이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Abrégé D'architecture Concernant la Distribution, la Décoration et la Construction des Bâtiments Civils(민간건축물의 배치, 장식 그리고 축조에 관한 건축 개론)은 이러한 개념을 제목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Etlin, Richard A.: Symbolic Space: Fench Enlightenment and its Lega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94, pp. 126-130, 215n8 참조

5) Convenance는 건축 Project와 목적, 용도(目的)Déstination, (형) Destination)사이의 일치 를 지시함.

장식 (La Décoration)

언급하였듯이 Blondel에게 있어서 건축의 주요항목을 구성하는 장식, 그리고 단순한 전통적 주법의 사용과 형태 만들기(Mise en Forme)에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장식은 '합목적성(Convenance)'⁵⁾의 조건을 매개로 건축과 사회의 요청 사이에서 조성되는 모든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장식을 단순한 치장의 범위를 떠나 합리적 사고에까지 연결함은 그를 '합목적성'의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어느 건물의 용도 및 그 거주인이 지닌 사회적 지위는 장식으로써 Façade에 적절히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Décoraton이란 건물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치장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지니고 있는 용도와 목적을 나타내려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Cours」는 이같은 개념하에 다양하고 상이한 종류의 건물들이 지닌 각기 고유한 기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는 방식의 종류를 훑어보고 있어서 호화로운 장식된 왕족의 궁전으로부터 검소한 장식의 개인 주택들, 극장으로부터 병원, 공중 욕장으로부터 묘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프로그램을 리스트로 작성하였다. 다양한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함은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개방성을 증언하고 있던 하지만 건축가는 오로지 5가지의 주범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수많은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당대의 다양성에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Décoration의 조건을 충족시킬 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 품위 또는 소유자의 재력에 따라서... 건물에 다양한 형태를 부여할'⁶⁾ 필요성은 건축적 효과에 관한 나열목록을 줄여서 규정하는 Caractère의 이론에 이르게 되었다. 「Cours」의 제1권 끝부분에서는 건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몇가지 특성(Caractère)들이 나열되었다. 이에 따르면 숭고한 것들(Sublimes), 감탄할 만한 것들(Admirables), 독창적 또는 쾌적한 것들(Agréables), 다양하고(Variés), 자유롭고(Libres), 정확하고(Exactes), 대칭적이고(Symétrique), 여성적이고(Féminines), 불가사의하고(Mystérieuses), 무섭거나 야만스런(Terribles ou Barbares) 건축들을 구분지을 수 있다.⁷⁾

구체적으로 건축의 Caractère는 주법을 다루고 채용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된 반면 Renaissance 이후

고착되어 온 'Genre'⁸⁾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 즉 Toscan주법은 투박한 견고성을, Doria주법은 견고하고 남성적, Lonia주법은 여성적, Corinth주법은 풍부하고 우아하며 경쾌한 반면 합성주법(Composite Order)은 거의 청년기적 우아함이란 주제와 연관되게 되었다. Blondel은 Palladio, Scamozzi, Vignola의 비례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축의 주법에 관한 지식은 그것들의 기원, 종류, 그리고 고유한 특색들에 관하여 고찰하는 연구로써 이루어진다'⁹⁾ 고 단언하고 있다. 「Cours」에서 Palladio와 Scamozzi의 비례론은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Blondel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는 반면 Vignola가 사용하는 척도들은 쉽사리 서로 연역하기 쉬워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그는 단순성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적 미학에 접근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쉽게 양질의 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 역시 충족시키고 있어서 이론가들이 오랜동안 추구해 온 전통적 비례의 관점에 일종의 실용주의가 첨가되게 되었다.¹⁰⁾

요컨대 이상적 비례보다도 더 Blondel이 집착했던 것은 고전시대에 점진적으로 다듬어지고 추구하였던 치수체계, 그리고 전체 및 부분간의 조화(Correspondance)의 시스템에 근거한 형태적 일관성이다. 그는 「Cours」에서 Décoration을 논함으로 단순한 쇠시리(Moulure)로부터 원주(圓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Façade를 장식하는 박공까지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유대체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각 건축규범마다 각기 다른 쇠시리, 난간의 형태, 창문 또는 벽감들의 배합이 있어야 한다. Blondel은 Caractère이론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건축에 부여하였는데 이에 사용된 건축요소가 바로 주법(Order)이다. 여기서 Caractère는 바로 표현의 과도함과 빈곤 사이의 화해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¹¹⁾ 이 화해란 건축가가 그의 작품의 과도함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화해라고 할 수 있어서 「Cours」에서는 Borromini의 과도함, Rococo의

6) 'Donner des Formes Diverses à des Batiments... Selon le Rang, la Dignité ou L'opulence des Propriétaires' in Blondel, J.-F.: Discours sur la Nécessité de L'étude de L'Architecture, Paris, 1754, p. 45.

7) Fichet, F.: 전계서 참조.

8) 원천적 의미의 Genre, 즉 Aristoteles에 있어서 Genre(Genos)는 종(種)으로 구별해 낼 수 있는 기본단위(Eidos)를 일컫는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Genre는 각가지의 건물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단위를 일컫지만 18세기로부터는 새로운 건설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여 건축적으로 작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증주의적, 또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그 개념이 바뀌게 된다.

9) 'La Connaissance des Ordres D'architecture Consiste dans L'étude Méditée de Leur Origine, de Leur Espèce & de Leurs Propriétés Particulières.' in Blondel, J.F.: 「Cours D'architecture」, Paris, 1771-1777. Tome II, p. XXV.

10) Kaufmann, Emil: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Baroque and Post-Baroque in England, Italy, Franc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55, p. 132 참조

11) Kaufmann은 Blondel이 불린서 고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대립항을 조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화해'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전계서 pp. 132-133 참조.

무절제한 미 또는 젊은 건축가들의 방자스런 환상적 작품에 대한 빈번한 공격은 그가 건축의 질서에 관하여 서술하는 양 만큼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가 지나친 모든 종류의 건축에는 그 방종스러움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척도로서의 진실한 건축이 대립항을 구성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건축가들이 정열(情熱)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시작해야 하지만 자기의 자유분방한 취향과 깊은 심사숙고가 혼합되어 정리될 것을 권한다. 건축가가 이러한 끈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Blondel은 Dessin의 훈련을 권할 뿐만 아니라 조각가에게서 배울 것을 주장한다.¹²⁾ 따라서 조각은 건축가가 되려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상적 모델이 되었다. Blondel은 회화가 상상력을 넓힐 수 있고 표현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닌 환상적 성격을 경계하였다. 반면에 회화에 비하면 조각은 훨씬 도덕적이고 제작 초기부터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다른 어떤 시각예술보다도 건축가의 작업물에 훨씬 가깝다. 여기서 미학적 의지는 도덕적 의미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londel은 다른 합리주의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단일성(Unité)과 단순성(Simplicité)을 최고의 미학적 가치로 생각하였다. 그는 당시 이태리의 신건축운동에서 볼 수 있던 육중한 볼륨, 그리고 지나치게 대비된 Façade의 성격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자신의 눈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François Mansart의 Château de Maisons과 같은 정확성과 공간의 유동성이 한데 섞인 Grand Siècle¹³⁾의 건축원리를 모범으로 하였고 대칭을 건축에 있어서 주요한 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입면에 있어서 단순히 좌우를 동일하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돌출부(Avant-Corps), 박공, 지붕 및 위계적인 구성을 강화시키는 건물의 중앙에 배치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피라미드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임을 의미한다.

「Cours」는 합리화를 향한 의도하에 박공이 Entablature의 수평성을 파괴하는 등의 모든 겹침과 관입을 반대한다. 따라서 Borromini 등으로부터 전수되어 내려 온 굴곡이 심한 윤곽선뿐만 아니라 쓸데 없는 장식, 그리고 여러 주범을 층에 따라 포개어 배치하는 것이 모두 배척되었다. 이처럼 체계와 검소함을 향한 강한 추구는 일렁이거나 돌출된 면을 평평한 고전적 장식으로서의 환원으로,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구성(Composition)방법으로는 가소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소위

‘자주적 건축(Architecture Autonome)’¹⁴⁾으로 되어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

Blondel의 「Cours」는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볼 때 의견이 하나로 집중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관점이 나열됨으로써 분산되고 있어 일사분란한 일관성은 결여되어 보인다.¹⁵⁾ 이처럼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Blondel의 시각적 다양성 및 그것의 이행적 변화는 그가 비록 고전주의의 교훈 및 원칙에 일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코코로의 비자주적 건축으로부터 고전주의적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자주적’ 건축으로 이끌고 있는 시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Blondel의 절제와 합리주의적 사상은 역사적, 양식적 견지에서 볼 때 이미 확고히 완성된 것으로라기보다는 냉철한 건축형태의 기하학적 그리고 건축 프로그램의 합리화를 통하여 반로코코운 등으로부터 고전적 건축으로의 이행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12) 'Nous avons désiré que les jeunes artistes qui se vouent à l'architecture apprennent le dessin, plutôt chez nos habiles statuaires que chez nos peintres célèbres: l'expérience nous avons fait connaître qu'ils deviendraient plus véritablement savants dans la beauté des formes, moins outrés dans leurs contours, plus circonspects dans leurs compositions: 우리는 건축에 몸바친 젊은 건축가들이, 우리 학교의 유명한 화가보다는 오히려 유능한 조각가에게서 Dessin을 배울 것을 열망했다: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형태미에 있어서 더더욱 숙련될 것, 윤곽선에 있어서 덜 과장하게 될 것, 구성에 있어서 더더욱 신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Blondel, J.-F.: 전제서 2권 pp. X-XI.

13) Grand Siècle은 '대세기(大世紀)'라는 뜻으로 루이 14세의 시대를 가리킴.

14) 자주적 건축(Architecture Autonome (獨): Autonomous Architecture (英))은 18세기의 프랑스 고전주의 건축에 있어서 건물 덩어리가 비교적 일차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여 주변의 건물과 관계없이 혼자만으로 가소성이 강하게 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립되는 개념의 건축, 공간 구성으로서 역사가 Emil Kaufmann은 '바로크 사슬(Enchaînement Baroque)'을 제시하고 있다. 자주적 건축과 바로크 사슬은 차후에 후술하겠다.

15) le Manuscrit que je vous ai confié n'est que le résultat de vingt années de recherches: mais qui faites dans des temps différents... manque peut-être de cette liaison nécessaire... (내가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은 원고는 20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에 불과하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썩어진 것이라... 아마도 요구되는 연결성은 결여되어 있을 겁니다...), 「Cours」 1권 VI.